

전기차/배터리산업

전기차산업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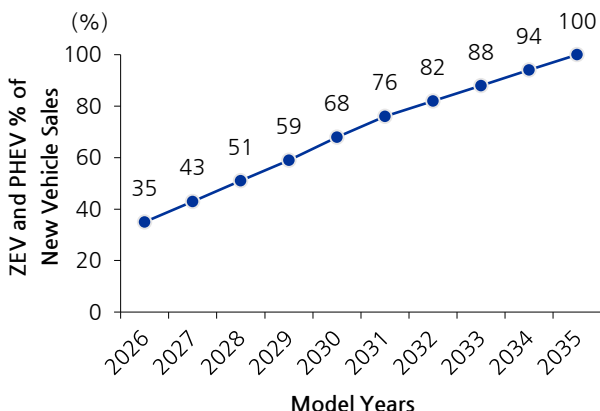
트럼프 인수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보도로 시장 불안감 높아져. 캘리포니아 등 반대 주들의 지원정책과 전기차관련 누적 투자액이 3천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고려하면 감속은 가능하나 시장 붕괴는 없을 것

트럼프와 미국 전기차 업황 업데이트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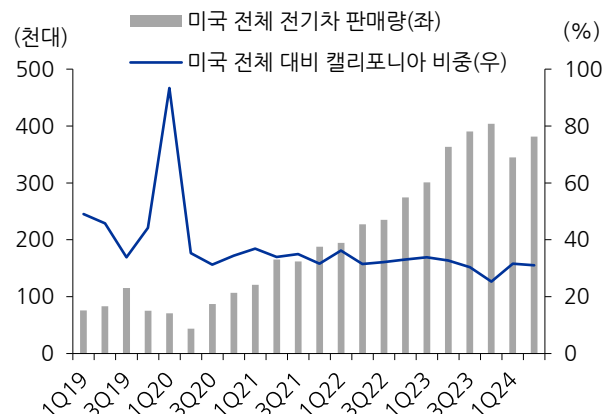
- 트럼프 인수팀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보도로 내년 업황 가시성 낮아져
- 의회 동의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조정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중고차, 리스차 세액공제 폐지가 타협안 될 수도
- 의회와 주정부에서 가장 반대가 심한 폐지 대상이 AMPC. 지역구의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 공화당의 딜레마일 것
- 보조금 폐지 시점도 중요. 기존의 사례처럼 유예 기간 두는 방식이면 폐지 전 전기차 수요 급증할 것
- 트럼프 1기때와 같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중심 주들의 전기차 확대 정책 본격 가동될 것
- 캘리포니아 내년 하반기(2026년 모델)부터 전기차의무판매비율 35% 도입. 이외 11개주들도 의무판매 제도 시행
- 캘리포니아 를 따르는 주들의 신차 판매 비중은 약 40~45% 수준. 트럼프 정부와 소송전 4년내내 이어질 것
- 트럼프 1기때와 전기차/배터리 시장 판도 완전 달라. 미국 내 누적 투자액만 3천억달러 상회. 미국이 경쟁에서 가장 뒤쳐진 상태. 속도 조절은 될 수 있으나 파국은 없을 것으로 판단

캘리포니아 전기차의무판매비율



자료: ca.gov,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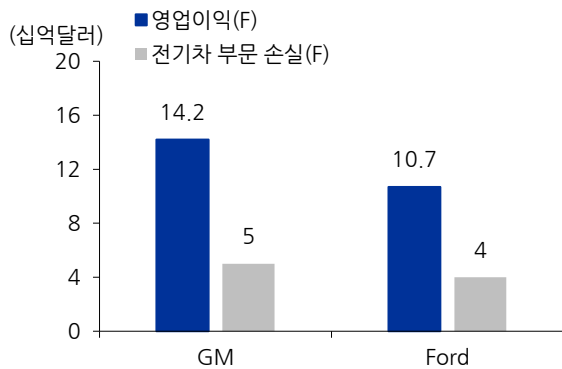
캘리포니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



자료: Veloz, Argonn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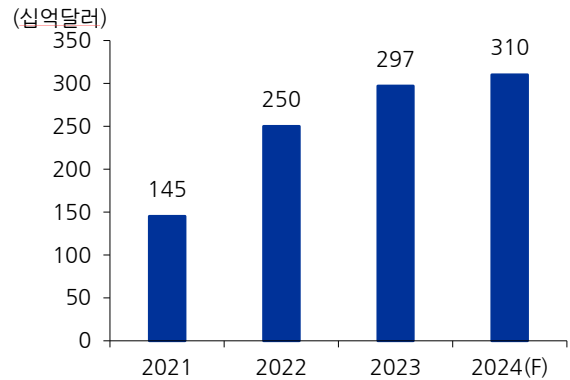
<p>트럼프 인수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보도</p>	<p>트럼프 인수팀에서 IRA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여타 보조금과 달리 소비자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기에 때문에 폐지에 따른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제일 먼저 목표가 된 것이다. 입법화된 것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지만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 100% 동의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논의과정에서 구매 보조금 전체가 아닌 중고차, 리스차 보조금 등으로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 또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주정부들이 가장 우려하는 AMPC 폐지도 이와 연계되어있다. 구매보조금 전체를 폐지하면 AMPC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이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p>
<p>캘리포니아 등 반트럼프 주들의 반격도 주요 변수로 부상</p>	<p>캘리포니아는 2023년 10월에 Advanced Clean Cars II를 도입했다. 전기차의무판매비율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식 신차 모델부터는 35%의 전기차 판매 비율이 의무화되고, 2035년 모델부터는 100% 비중을 지켜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의무비율을 따르는 것에 동의한 11개주들과 워싱턴 D.C도 이 비율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 주들이 차지하는 미국 내 신차비중은 약 40~45% 수준이다. 완성차업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인 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 과거에도 이를 두고 캘리포니아와 소송전을 했었고, 이번에도 동일할 것이다. 주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완성차업체들은 트럼프정부의 뜻에만 맞춘 반전기차 전략만 고수하기 어렵다.</p>
<p>과거와 다른 환경, 감속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장 붕괴는 없을 것</p>	<p>구매보조금의 수정 정도와 시기에 따라 미국의 단기 전기차 판매 추정에 대한 가시성이 낮아졌다. 보조금이 폐지되면 판매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다만, 그 정도는 시장을 파괴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판단의 근거는 1)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관련 누적 투자 규모가 3천억달러를 상회하면서 2) 주요 완성차업체들의 투자 규모가 되돌리기에는 늦은 상태이고 3) 미국의 전기차 경쟁력이 중국과 유럽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고 4) 트럼프의 재집권 4년으로는 내연기관차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감속은 될 수 있으나, 전기차 시장이 흔들거릴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p>

도표 1. GM, 포드의 '24년 영업이익과 전기차 부문 손실 전망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미국 전기차/배터리 관련 누적 투자 현황 ('24년 8월 기준)



자료: Atlas EV Manufacturing Investments, 유진투자증권

도표 3.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859	2,321	3,013	3,880	4,844	5,853	7,036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621	2,029	2,652	3,440	4,305	5,194	6,233
YoY(%)	51.2	56.3	12.9	25.2	30.7	29.7	25.2	20.7	20.0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4	8.9	9.8	11.9	15.2	19.3	23.7	28.1	33.0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91	361	441	539	659	804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29	8,515	11,027	13,121	15,304	17,587	19,909	21,873	23,599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0,538	12,505	14,522	16,588	18,631	20,219	21,433
YoY(%)	83.7	36.6	30.2	18.7	16.1	14.2	12.3	8.5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4.0	39.2	44.2	49.0	53.4	56.3	57.9
일본 전기차 판매량	55	84	122	176	255	373	535	765	1,090
YoY(%)	30.0	53.6	45.3	43.7	44.8	46.2	43.6	43.0	42.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2	1.8	2.5	3.6	5.1	7.3	10.3	14.4	20.1
기타 아시아 총합	499	671	733	880	1,053	1,252	1,485	1,777	2,153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75	3,061	3,560	4,040	4,556	5,165	5,986	6,977
YoY(%)	15.1	18.1	(0.5)	16.3	13.5	12.8	13.4	15.9	16.6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1	22.5	25.7	28.6	31.6	35.1	39.9	45.6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8	480	623	798	997	1,227	1,472	1,737	2,033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6,570	19,800	23,354	27,250	31,390	35,449	39,645
YoY(%)	55.0	35.7	21.0	19.5	17.9	16.7	15.2	12.9	11.8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8.4	21.4	24.5	28.0	31.6	35.0	38.4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9.30 기준)